[인민론단]

민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한번씩 열리는 전국 량회가 시작되였다. 이는 전국인민의 정치생활에서의 대사이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견지에서 말할 때 우리와 긴밀히 관련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북경의 손녀사는 절강 남심 고진에서 관광하다가 발을 헛디뎌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의료보험으로 결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가? '국가의료보험써비스 플래트홈' 앱을 열고 '의료비 타지역 결제 신청'을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QR 코드를 스캔했다… 직접 돈을 내고 결제받을 필요없이 쉽게 의료보험 지불을 완성했는데 '의료비 타지역 결제'가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이런 좋은 정책은 어떻게 생겨났을가? 대중이 문제를 반영하면 인민대표는 건의를 제출하고 정부사업보고는 포치를 하고 각 부문에서는 기제를 세우고 시달한다… 청구(诉求) 표달에서 실제 혜택를 얻기까지 고리마다 맞물린 과정은 전 과정 인민민주가 민생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생동한 구현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주는 장식품으로, 진렬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바라는 인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여권이 있는지, 그들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서 나타난다.

57세 나는 왕영등은 14기 전국인대 대표중 유일한 시각장애인이다. 직책 리행중 그는 관련 부문이 특별히 그를 위해 제작한 점자판(盲文版) 건의 답복을 받았다. 북경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때 대회측은 그에게 특별히 점자판 정부사업보고를 준비해주었다. '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관심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시각장애인 군체는 비록 타인을 볼 수 없지만 량회라는 이 민주무대에서 그들은 전사회에 의해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사회는 함께 방법을 강구해 시각장애인 군체의 생활이 더욱 아름답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러 지역, 여러 분야, 여러 민족은 모두 자신의 인민대표가 있다. 여러 당파, 단체, 계층, 계별 인사들에게는 모두 자체의 정협위원이 있다. 기업가, 과학자, 교원, 로동자, 농민, 장애인…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의 청구가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국 량회이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동경과 그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14억이 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을 국가 발전의 최상위 설계에 융합되게 하고 있다.

량회는 전 과정 인민민주의 일환이다. 광활한 중국 대지에서 민주는 실질적인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바로 백성들 곁에서 생활 분위기가 넘치는 기층의 민주 실천이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활력으로 넘치고 있다.

상해 홍교가두의 서로 린접한 두 아빠트단지 사이에 문 하나가 있었는데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두 단지 주민들은 수년간 줄다리기를 했다. 그들은 주민구 당총지부위원회의 주도하에 여러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 공감대를 달성했다. 그들은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담까지 허물고 두 단지 사이에 공유 정원을 조성했다… 민주협상이 도시 관리의 '동심원'을 그려낸 것이다.

민주간담회에서 '뜨락의사청'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의사(议事)단체방에서 지도자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새시대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경로가 있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청구를 표달하고 관점을 협상할 수 있다. 어떤 의견이나 건의든 건설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솔직한 교류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방법을 강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민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구호를 웨치는 것도 아니며 텅 빈 개념도 아니다. 반드시 국정에서 출발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해야만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의 주인공적 권리를 진정으로 실제적인 곳에 시달되게 할 수 있다.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민주의 길은 반드시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 인민넷

인대 립법

기층의 목소리 반영될 수 있을가?

2월 28일, 전국인대 대표이며 련운항시 해주구 신해가두 해련사회구역 당위원회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소나는 일상 업무를 마친 뒤 동료, 주민들과 마주앉아 더 많은 기층의 목소리를 북경으로 전달할 수 있게 자신의 건의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신화넷

매년 전국 량회는 백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립법할 때 대중들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기층의 목소리 또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아주 궁금하다.

—인민넷 네티즌 13****6

이 네티즌은 아주 예리하다. 전국량회가 소집되면 세계의 눈길이 중국에 집중된다. 량회의 많은 화제중 '립법'이 널리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립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은 중요한 직책이다. 기층 일선의 민의와 대중의 목소리가 인민대회당까지 전달될 수 있을가? 이는 국가의 성질 및 립법의 취지와 관계되며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한 리념의 시달과 관계된다.

답안은 긍정적이다. 완비된 과학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인대 립법은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충분하게 구현했는바 기층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첫번째 단계인 립법 항목의 제출에 대해 말해보자

2024년,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기간 접수한 대표 의안은 298건이다. 그중 292건이 법률안 즉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와 해석 관련 의안이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 계획을 제정할 때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건의를 정리, 연구하고 좌담회, 론증회를 조직하여 립법 계획 편성에서의 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전국인대 대표들은 인민들 속에서 왔는바 기층의 목소리가 수렴되여 립법의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번째 단계인 법률 초안의 형성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중학생의 의견도 수렴되여 법률에 씌여질 수 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중 한조의 립법 개정 건의는 화동정법대학부속중학교 학생이 제기한 것이다. 기층립법련계점을 통해 보고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의해 립법 과정에 수렴 채택되였다.

기층립법련계점의 역할은 얼마나 클가?

2015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가 기층립법련계점을 설립한 이래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한 법률중 90% 이상의 법률안이 기층립법련계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층립법련계점은 이미 새시대 우리 나라 민주립법의 '직통차'로 되여 민의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는 사업의 중요한 기제로 되였으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천적 담체로 되였다.

또 하나의 례를 들어보자. '사회생활 백과전서'로 불리는 민법전은 모든 사람과 긴밀하게 관련되여있다. 편찬 과정에서 립법기관은 선후로 10차례 중국인대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루계로 42.5만명이 제출한 102만건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민법전 초안에는 '인격권편'(人格权编)이 없었다. 많은 전문가, 학자와 대중들은 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와 사생활권, 명예권 등 인격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채택된 민법전은 편장의 구조가 변화되였는바 인격권법이 단독으로 하나의 편장, 51개 조문으로 되여있어 인격권에 대한 보호 강도가 크게 강화되였다.

세번째 단계인 법률의 출범을 보자

한부의 법률 초안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여러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일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5년, 전국 량회 때 '세률'이 다시 '세법'에 돌아온 이야기가 있다. 그때 소집된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는 립법법 개정 초안을 심의했는데 대표들은 초안의 3심 원고에서 '세률'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는 서술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삭제 여부에 대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한 것일가?

심의에서 일부 대표들은 "세률은 세금 징수의 중요한 요소로 만약 세률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면 '세수법정'(税收法定)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는 통일심의를 할 때 대표들이 제출한 개정 의견을 조목조목 참답게 연구한 뒤 "세률은 법률로 규정한다."는 건의를 채납했다.

립법법(立法法)이라는 이 '법을 관리하는 법률'은 법치의 힘으로 인민민주를 수호한다.

그중 "립법은 반드시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인민넷

전국 량회, 6개 주요 키워드

1월 7일, 국가전력망유한회사 사천초고압회사의 선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이 레이다 드론으로 사천성 미산시지역의 송전 선로를 스캔(扫描)하고 있다. / 신화넷

전국 량회가 시작되였다. 올해는 '14차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자 개혁이 한층 더 전면 심화되는 중요한 해이다. 올해 량회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 키워드 1: '14차 5개년 계획' 종료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서 련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량회는 '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2026년—2030년) 계획'이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에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장립군은 "2025년에는 모든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 회복 추세가 구축 및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과 '15차 5개년 계획'을 련계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키워드 2: 소비 진작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9대 중점 임무중 '소비 대거 진작,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적 내수 확대'가 우선으로 꼽혔다. 동시에 '소비 진작 특별행동'도 안배됐다. 다수의 업계 인사들은 내수 확대는 장기적인 전략 조치이고 소비 진작은 그 핵심이라며 '소비 진작'은 올해 량회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재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를 지원하는 세수정책 역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조장기 특별국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보상교환판매의 범주 및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력 향상 및 소비 의지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3: 인공지능+

올 들어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는 오픈소스(开源模式) 모델과 가성비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인공지능+' 행동이 정부사업보고에 포함된 이후 올해 량회 기간에도 '인공지능+'가 핫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업인터넷연구원 스마트화연구소 부소장 고수새는 '인공지능+'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공급과 씨나리오 수요간 매칭에 속도를 내고 기술혁신, 응용혁신, 성과 전환 등 각 단계를 잘 련결하며 실험실에서 산업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뚫어 시장 수요가 주도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키워드 4: 중장기 자금 류입

막힌 지점을 뚫어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 심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얼마전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는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 추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올해 량회에서도 '중장기 자금의 시장 류입'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해개원기금회사의 수석 경제학자 양덕룡은 정책 차원에서 투자경리의 평가 주기를 실제적으로 연장해 투자경리가 단기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 투자 수익에 더욱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년금의 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키워드 5: 민영경제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신생력량(生力军)이자 고품질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수는 92% 이상이다. 국가 과학기술기업중에서의 민영기업의 비중 역시 92%를 웃돈다. 얼마전 열린 민영기업좌담회에서는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가 방출됐다.

안영회계사사무소 중화지역 세수정책 주관 파트너 심영화는 중소 민영기업은 감세강비(减税降费—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이나 자금 회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세수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진출 민영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해 해외 진출에 따른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키워드 6: '과도'한 경쟁 방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부 기업 공평경쟁좌담회를 개최, 7개 기업 관련 책임자와 '과도'한 경쟁 방지를 놓고 심도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북경, 강소, 호남 등지도 잇달아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과도'한 경쟁 종합 방지,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 단속"을 제기함에 따라 국무원 산하 기관과 지방에서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환경을 최적화하고 단기 리익을 위해 악성 경쟁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내보냈다고 평가했다. 올 량회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화넷

主管 / 主办 : 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 : 吉林朝鲜文报社 印刷 : 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 : 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 : 130011 传真 :87627100 广告许可证 :2200004000046 定价 : 180 元 / 年
编务办 : 87619812 全媒体中心 : 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 : 87627091 延边记者站 :(0433)2518860 吉林记者站 :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13604447151 白山记者站 :(0439)8224384 首尔分社 :+82(02)7868089